

지역 소식통

고창군 빈집정비사업 추진

고창군이 기존 놓여온 주택빈집 정비를 확대해 올해 처음으로 비주거용 빈집(창고, 공동작업장, 축사, 근린생활시설, 주택 부속 등)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고창군 관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비주거용(창고 등) 빈집과 주택 부속 건축물이 정비대상이다.

고창군은 예산 9000만원을 확보해 동당 최대 350만원을 지원해 약 28동의 비주거용 빈집을 정비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빈집정비사업과 중복해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비주거용 빈집정비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오는 18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날 하순계 사업대상자를 확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진드기 주의 당부

정읍시보건소가 최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야외활동 시 긴 옷 착용과 외출 후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당부하고 나섰다. 보건소에 따르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주로 6~14일의 잠복기를 거쳐 38°C 이상의 고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병이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228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전북에서는 16명, 정읍시는 2명이 발생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SFTS는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고 말했다.

이어 "진드기 물림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 시 긴팔·긴소매를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며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해 입고, 기피제를 사용하라"며 "야외활동 후에는 옷을 반드시 세탁하고 바로 샤워를 하며 진드기에 잘 물리는 부위(귀 주변, 팔 아래, 무릎 등)에 진드기가 붙어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뺨을 짖는 자성으로 쇠신”

고창군장애인체육회, 인권침해문제 등 부적절 운영 ‘사과’ 공공성 확립·시스템 재정비·감독강화 등 체질개선 예고

고창군장애인체육회장을 겸직하는 유기상 군수는 최근 보도된 장애인체육회의 구성원간 갈등으로 인한 인권문제, 체육단체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통감하면서 군민들께 머리숙여 사과 드리며,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장애인 체육활동을 통한 복지향상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뺨을 짖는 혁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체육단체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난 4월 28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하여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각 단체에 시정조치토록 통보했다. 특정감사 결과 고창군장애인체육회 직원채용과 계약관련, 체육단체 보조금 집행과 사무운영 관련, 보조금 지출단체 지도·감독 소홀 등의 잘못된 행위를 확인했다. 특히, 주요 지적 사항과 조치내용은 장애인체육회 사

무국 직원 급여 인상 부적절 지급에 대하여는 환수하고,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직원 채용 절차 부적절에 대하여는 장애인체육회 규약 및 운영규정에 의거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며, 기타 잘못된 사무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규약과 상충 되는 규정은 정비하고 보완하여 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고창군장애인체육회의 재규정 미비로 인한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조직안정과 체육행정 수행능력이 원비될 때까지 군 공무원을 파견하여 체육단체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체육 단체에 대한 직무 감사와 회계 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으로 공공성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고창군장애인체육회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회장인 유기상 군수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여러 잘못된 행위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군민 여러분께 크나 큰 고통과 실망, 좌절을 안겨

드렸으며, 갈등의 조기 수습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책임있는 관계자인 상임부회장과 사무국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무공간에서 분리조치 하였으며, 체육회 등 산하기관의 인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직 사태의 전말이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관계기관 등에서 구체적 경위와 수사결과가 소상하게 밝혀지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밝혀질 사태의 진실에 대해 회장으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하고 혁신적인 개혁을 완수해 비운 뒤에 땅이 굳어지듯 고창군장애인체육회를 반듯이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또, 많은 군민들이 염려하고 계신 장애인체육회의 현안업무와 주요사업 등 도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군 관계자는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재정비, 관리감독 체계 강화 등 근본적인 체육체질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뺨을 짖는 자성을 통해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는 쇠신을 이루어 신뢰받는 체육문화를 확립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이 지난 6일 고창읍 덕산리 충훈탑 광장에서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을 열었다. 유기상 고창군수, 조규철 고창군의회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과 보훈단체장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경건한 가운데 진행됐다.

순국선열·호국영령 희생정신 기리다

제65주년 현충일 추념식 잇따라

고창군 고창군이 지난 6일 고창읍 덕산리 충훈탑 광장에서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을 열었다.

유기상 고창군수, 조규철 고창군의회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과 보훈단체장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경건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추념식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식을 간소화 했다.

추념식은 국민여례를 시작으로 전국

적으로 울리는 사이렌에 맞춰 묵념, 헌화와 분향을 마치고 6.25와 월남참전지비, 고창고등학교내 자유평화진리탑과 6.25참전지비탑이 참배가 이어졌다. 유기상 군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추념식 규모는 축소해서 진행했지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충심은 가슴에 새길 것이다”며 “천금보다 귀한 혈액을 호국에 제단에 바치신 유가족과 국가유공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유진섭 정읍시장, 코로나19 극복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유진섭 시장이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항기공화국 정읍과 함께 이겨내요’라는 문구가 담긴 팸플릿을 들고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동참했다.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외교부에서 코로나19 극복 연대 메시지를 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해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손을 씻는 이미지에 ‘Stay Strong’이라는 문구를 적어 개인위생수칙 준수로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에 우리 모두 지치지 말고, 굳은 의지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한다면 머지않아 코로나19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 시장은 유기상 고창군수의 지명으로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다.

다음 릴레이 주자로는 윤준병 국회의원과 송도근 경남 사천시시장,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을 지명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는 지난 6일 제65주년 현충일을 맞아 충무공원 충훈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얼을 기리고 추모하는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다.

“코로나19 방역 긴장의 끈 놓지 말아야”

권익현 부안군수 강조

권익현 부안군수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끝까지 경각심을 갖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주문했다.

권익현 군수는 8일 열린 주요 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마지막까지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부안은 코로나19로부터 청정

지역이라는 말을 듣고 있지만 타지역의 경우 물류센터나 종교시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들에 대해 점검을 철저히 하고 군민들도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말했다.

권익현 군수는 또 “지난 4일 을 들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됐고 여름철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올하는 폭염빈도와 강도가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늘막을 비롯한 폭염저감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폭염대책을 마련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와 군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장마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로 준설 및 수초제거 등 농업용 수리시설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정읍시는 지난 6일 제65주년 현충일을 맞아 충무공원 충훈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얼을 기리고 추모하는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윤준병 국회의원, 고경운 정읍시의회 부의장, 정읍교육장, 이순신연대장, 부연대장, 백정기대대장, 10개 보훈단체장 등 각급 기관단체장과 도·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나라를 위해 산화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의 참 뜻을 되새기고 계승 발전시킬 것을 다짐했다.

이번 제65주년 현충일 추념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전국 동시 사이렌에 맞춰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과 헌화·분향 순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유진섭 시장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한 전몰·호국영령들께 12만 정읍 시민과 함께 삼가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훈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애국애족 정신을 후손들에게 계승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